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12.(목) 11:00 / 11. 13.(금) 조간 배포 2026. 11. 12.(목) 06:00

“함께 일하며 모두 행복한 가족” 농촌진흥청, 가족경영협약 우수사례 선정

- 가족 간 역할 분담·상호 존중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 사례 발굴

- 경북 예천 ‘장유원영농조합법인’ 등 총 5곳 선정

- “가족경영협약, 안정적 세대 승계 출발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분야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가족 단위 농업경영체 5곳을 선정했다.

가족경영협약은 부부,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근로조건, 소득 배분, 경영승계 방안 등을 함께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약속함으로써 건강한 농업경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율적 약속을 의미한다.

지난 2025년부터 ‘가족경영협약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구성원 간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경영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대상은 경북 예천 ‘장유원영농조합법인’이 받았다. 최우수상은 충남 아산 ‘우즈그린팜’, 강원 철원 ‘코스모블루베리’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전북 남원 ‘입동농장’, 충북 음성 ‘다섯농원’이 수상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경영하는 장유원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가족경영협약을 통해 구성원별 전문 역할(생산, 관리, 판로)을 분담하며 경영 효율을 높였다. 또한, 직함을 부여하고 일일 정기 회의를 통해 공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했으며, 표준 근로 시간 준수와 합리적 급여 체계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한 경영 모형을 구축했다.

이러한 변화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2026년 매출은 협약 도입 전보다 약 43% 증가한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협약 체결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지표에도 가족경영협약 추진 실적을 추가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가족경영협약 교육 수요 확대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수선 과장은 “가족경영협약은 가족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세대 승계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육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가족농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가족경영협약’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책임자	과 장	박수선 (063-238-1010)
		담당자	지도사	류은혜 (063-238-102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6년 '가족경영협약'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목 적

○ 성과가 우수한 농촌자원사업 추진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함

❑ 심사 개요

○ 평가 항목 : 정책이해도, 협약체결 현황, 개선 사례, 성과 확산

❑ 심사결과

구 분	점 수	지 역	경 영 체 명
대 상	1	경북 예천	장유원영농조합법인
최우수	2	충남 아산	우즈그린팜
		강원 철원	코스모블루베리
우 수	2	전북 남원	입동농장
		충북 음성	다섯농원